



동우케미칼

나는 예수님의 자존심

오래 전의 일이다. 일본교회의 목사가 건물주와 문제를 일으켰다. 나는 급히 일본으로 날아가 건물주인 야쿠자 오야봉을 만났다. 그를 보자마자 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야쿠자 오야봉은 깜짝 놀라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다.”라며 되레 나를 일으켰다. 일을 마무리 짓고 나오는데 함께 갔던 전도사가 “목사님, 무릎까지 꿇으셔야했어요? 순간 울컥 했어요.”라고 하기에 내가 이렇게 말해줬다. “우리 교단과 교회는 내 자존심이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에 한밤중에 찾아온 벗에게 먹일 것이 없던 자는 다른 벗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다. 결국 그는 떡 세 덩이를 얻어 찾아온 벗의 배를 채운다. 그는 자존심을 버려 자존심을 세웠다.

자존심(自尊心), 그것은 나 자신이며, 내 인격의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자존심이 밝히면 싸우고, 울고불고, 심지어 자존심과 목숨도 바꾸는 것이다.

기업이 만든 물건은 그 기업의 자존심이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불리는 이견회 삼성 회장의 신경영 시대는 바로 삼성의 물품이 진열대에 오르지 못한 자존심 파괴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인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기 때문이었다. 그것들이 파괴되고 악한 것들에게 놀아나는 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다. 당신의 자존심을 버려 자존심을 회복하신 것이다.

나는 우리 목사들, 직원들에게도 ‘매사 최선을 다해라, 정도를 가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그들이 나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이다. 그 분이 자존심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그 분의 자존심이다. 그런데 맘대로 엉망으로 살아 세상 사람에게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더 이상 예수님의 자존심에 금가는 일, 하나님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은 하지 말자. 우리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신 그 분의 자존심을 이제는 지켜드리자.

오래전 이시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총회장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다.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으나 총회장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를 짓는데 120층 건물을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실 때인 것으로 기억된다. 이시대 목사님 스스로 처음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앞에서는 ‘아멘’했지만, 속으로는 잘 아멘이 안 되더라는 거다. 그런데 총회장 목사님 곁에서 함께 사역을 하며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말씀도 인용하셨다.

“큰 아범은 젊을 때도 뽕을 잘 치더니 여
전하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은 뽕
치는 거 같은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뭐

는 대답이 너무나 안일하게 느껴진 그는 ‘황당무계한 목사님’이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면 그 행사를 앞두고 폭우가 쏟아져 수도권일대에 물 난리가 나자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고, 그 통보를 박 집사가 가장 먼저 전화로 받게 되었다. 황당무계한 목사님이라며 속을 끓이고만 있던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 목사님은 결과를 보고하는 박 집사에게 “전화를 박 집사가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라고 말하며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셨다 한다. 목사님 설교에서 자주 듣던 간증이다.

뺨을 치는 것 같은데도 그 뺨이 이루어지는 황당무계한 목사님. 그럼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목사님이 워낙

고 또 기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가라 하셔놓고 이러시면 난 어찌란 말예요!”

목사님의 일하는 방식을 가까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목사님은 남들이 뻥이라고 할 만큼 황당무계한 믿음의 선포를 이루기 위해 지극히 작은 일부터 혼신을 다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어떤 일도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할 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목사님은 매사 전력을 투구하신다. “하나님이 어찌 해주시겠지?”, 천천만만이다. 목사님께 그런 대충주의는 발도 못 붙인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의 신앙철학 자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



오늘 11월 말에 진행될 올림픽공원 집회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절호의 찬스다

나!”
온 성도들이 함께 폭소를 터트린 기억이
생생한데, 요즘 들어선 그 이야기가 단
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는 깨달음
이 온다.

올림픽공원에서 예배드리던 시절,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행사가 올림픽공원에 대대적으로 계획되어 당장 다음 주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사무국장 박대경 집사는 목사님을 찾아가 다급하게 보고를 드렸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보고를 받고도 아주 태평하게 대답하셨다고 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겠어?” 박 집사로서는 목사님이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돌아오

믿음이 좋으셔서 선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신기라도 갖고 계신 걸까? 물론 당신 스스로 '나에게 배울 것은 믿음과 지혜'라고 자주 말씀하시듯이 목사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 또 인정이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사님의 믿음에 대해 따지자는 것이 아니요, 목사님이 당신의 믿음을 보이고자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하는지를 말하고자 함이다.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가 수면 아래에서는 얼마나 부지런히 물갈퀴를 휘젓고 있는지 아는가. 목사님이 박대경 집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겠어?”라고 대답해놓고 그냥 앉아계셨을까? 아마도 골방에 들어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방성대곡하며 기도하

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눅16:10).

믿음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약2:26). 하나님을 믿기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고, 믿음이 있기에 전도하고, 믿음이 있기에 용서하고, 믿음이 있기에 화개하고, 믿음이 있기에 십일조하고, 믿음이 있기에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것 아닌가?

오는 11월 말 올림픽공원 집회 역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절호의 찬스다. 다함께 기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자. **한은택 목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5:14~30)



꿈이 없으면 늙고 쓰지 않으면 녹는다

‘꿈이 없으면 늙고, 쓰지 않으면 녹는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군가는 설교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온다고 하던데, 당신은 제목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승용차라도 안 쓰고 차고에 잘 모셔두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연장이니까 하고 안 쓰고 두면 녹습니다. 기도원 창고에 가보니까 녹슨 연장들이 있습니다. 안 쓰니까 녹슨 겁니다. 자고로 자주 쓰는 열쇠가 빛이 나고 문도 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도, 머리도 예외 없이 안 쓰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부터 할까요? 저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연수로 보면 운전과 관련한 한 베테랑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운전 초보입니다. 안하니까요. 사업할 때부터 운전기사를 두었고, 또 목회를 하면서는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운전할 일이 없다보니 운전을 잘 못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소형차를 몰고 나갔는데,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는 바람에 대형사고를 칠 뻔한 적도 있고, 광화문에서 차선 변경을 못해서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식은땀이 납니다. 그럼요, 안하면, 안 쓰면 녹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녹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 일까요? 그것은 자주 쓰는 것입니다. 자주 쓰려면 부지런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녹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매사에 부지런을 떼는 것입니다.

100% 결심보다 1% 행함이 낫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어느 주인이 각자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둘 다 즉시 나가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게으름 피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마25:24~25). 그러자 그 주인이 분노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고, 바깥 어둔 데로 내어 쫓았습니다(마25:30). 자고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옛 어른들이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핑계를 잘 대는지... 하나님도 이를 이미 아신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

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잠26:13~14). 핑계대지 말고 부지런을 댑시다. 나이는 어린데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관리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몸이 부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부지런히 운동 안 해서 그렇습니다. 뇌도 부지런히 쓰지 않고 놀리면 녹슬어 치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개발하듯 자신도 가꾸고 개발해야 합니다. 물도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알맞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고 맙니다. 녹슬고 맙니다. 방언 기

도를 오랫동안 안 안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귀신 쫓는 거요?

두말할 필요 없지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파내야 마르지 않습니다. 믿음도, 예언하는 것과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모두 사용해야 더욱 은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만물은 쓰면 줄어들지만, 모든 은사는 써야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펌프라는 것이 집마다 있었습니까. 마중물을 조금 붓고 펌프질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도구이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펌프질을 안 하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펌프 거리가만 하지 물이 절대 안 나옵니다. 왜요? 물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계속하지 않으면 펌프에 물이 빠지듯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쉬지 않고 귀신을 쫓으신 것입니다(눅13:32).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1:6).

기도도 그렇습니다. 안 하다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기도 줄이 안 잡힐 뿐더러 오만 잡생각이 다 듭니다.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목이 간질거리고 기침만 나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앉자마자 기도줄이 바로 잡히지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한 것이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들어와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너무 아끼면 돈도 녹습니다. 쓸 때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걸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11:24)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썩과 동록이 해 하 며 도적이 구멍

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썩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6:19~20)며 녹스는 세상에다 쌓지 말고 부지런히 하늘창고에 쌓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평생 1모작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2모작, 3모작을 하여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화투판이나 벌이는 농부가 있는가하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겨울에도 소출이 있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인생도 1모작으로 끝내는 자보다 2모작이 낫고, 2모작보다 3모작이 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부지런을 떼어야 합니다.

머리도 그렇습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 났을 염려일랑 붙들어 매고 많이 쓰세요. 조선시대의 한 왕이 세자가 장가를 나이가 되자 직접 세자빈을 간택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전국에 방(榜)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재력 좀 있고, 지식 좀 있다는 집안 여식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왕은 그들

에게 “너희들에게 쌀 한 말을 줄 테니 일 년 동안 다른 것은 먹지 말고 이것으로만 연명하고 오너라. 절대 이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모두에게 쌀 한 말을 나눠주었습니다. 세자빈 후보들은 쌀 한 말씩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 년에 쌀 한 말이라... 아무리 가녀린 처자들이라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일 년 후 궁궐에 다시 모인 처자들의 물결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나타나지 않은 자들도 있고, 심지어 들 것에 실려 온 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처자만이 얼굴이 발그레하니 건강할뿐더러 쌀도 잔뜩 싣고 나타났습니다. 왕이 그 처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그 처자 왈, “상감마마, 쌀 한 말로 일 년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쌀로 떡을 만들어 팔고, 다시 그것으로 쌀을 사 떡을 팔았더니 나중엔 쌀 한 달구지 값이 남더군요.” 왕은 “네가 정녕 이 나라의 지어미로 합당하다.”며 그 처자를 세자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운도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자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이나 벌리고 있는 자와 사다리를 가져다 감나무에 오르는 자 중에 누가 감을 먹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입으로 감이 안 떨어지면 운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는데 무슨 행운이 따라옵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감도 따고 운동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는 꿈만 꾹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리고,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절대 늙지 않습니다. 모세가 80세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 갈렙이 80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 그 꿈들이 그들을 부지런하게 했고, 늙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적질하지 마세요. 게으른 당신이 바로 도둑입니다. 성경은 “때를 아끼라”(엡5:16)고 했으니 부지런히 머리를 쓰고, 부지런히 육체를 단련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주신 은사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창조주의 우월성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만들어진 것과 만든 자를 비교하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이다. 누가 목사님께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과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 질문했단다. 목사님께서 인간이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게임 끝이라고 간단히 대답하셨단다. 너무 명쾌한 답변이셨다. 천지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숙지시키고 있다. 인간을 비롯해 하늘의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내리시면 그 순간 멈추고 끝나버림을 알아야 한다. 우주 만물은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계신다.

믿는 자들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5장 14절~17절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되었다면, 예수 한 분으로 믿는 모든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죄는 피조물 아담으로 온 것이고, 의는 창조주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피조물 아담이 이룬 것보다 창조주 예수가 이루신 것이 훨씬 확실하고 우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믿는 자의 구원이 인류가 죄인된 것보다 더욱 확실한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롬5:14~17).

히브리서 9장 13~14절에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염소나 황소 같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다면 창조주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케 하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고 말씀하신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양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히9:13~14).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위대한 저서들을 모두 다 합쳐봐야 성경 한 구절만도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든 글들은 피조물의 글들이요, 성경은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피조물과 창조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말씀인가를 믿고 사는 자가 복이다.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템플 감독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부탁을 받았다.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은 모두 석학들인데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응답에 대한 설교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감독은 전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기도응답에 대한 설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이 있다며 손을 들고 말한다.

“감독님은 지금 기도응답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은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독님이 하도 마음에 소원하시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기도응답이란 우연의 일치이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템플 감독은 대답했다.

“당신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만 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도 안 생기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요(삼상12:23),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다(살전5:16~18). 또한 목사님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요, 믿음은 기도한 것을 믿는 것이라고 교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공원 전도집회를 위해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한다. 그러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집회의 성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려는 섭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응답 받고, 축복 받으라고 허락하신 작정 기도회에 적극 동참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목적 없는 훈련은 없다

절망을 절망시키는 사랑

큰 아이가 두 돌 조금 지나고, 작은 아이도 역시나 찢먹이였을 때였다. 혼자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어디 간다는 것이 적잖게 부담이 되었다. 그 날도 수요일에 배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마침표 없이 이어지는 잔일에 지쳐 속상한 마음에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자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큰 아이가 현관문으로 달려가더니 ‘교회에 가자.’고 울며 문을 두드리는데 앉는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나 체육관으로 간 그날 설교 말씀은 욥기서 1장을 본문으로 한 ‘목적 없는 훈련은 없다’였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스스로 고뇌하고 번민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었다. 물론 그 뒤로도 상황이나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나 자신 역시 단번에 변하지 않았다. 다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교훈과 훈계로, 때론 책망으로 나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었고, 언제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전들은 우리가 이

해할 수 없는 상황은 물론, 때로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변개치 않았는데, 그들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한다. 초등학교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암송케 하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는 이 말씀이 성인이 된 내 삶의 축이 될 줄을 그때는 몰랐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나를 굳세고 강건케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악한 마귀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우리 가는 순례의 길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과 입술을 지켜(잠4:23)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고, 또한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이국진 사모
joyfuljina@hanmail.net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의 고통과 두려움을 절절히 느낄 수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시편 56편을 펴보면 표제로 이렇게 쓰여 있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란 ‘철에 새기다’, ‘도장을 찍다’란 뜻으로,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쫓기고 포로로 잡혀있던 그 위급한 때에 동굴암벽이나 바위에 이 시를 새겼다는 말이다.

시편 56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다윗은 포로로 잡혀있을 때에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를 짓고 찬양하며 읊조렸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도, 양떼 외엔 친구가 없었을 때에도, 포로로 잡혀 생명이 위급한 때에도, 아들이 반역을 꾀했을 때에도. 다윗이 왜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모습들이다. 언제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포로로 잡혔을 때조차 감사제(시56:12)를 올렸던 다윗,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신안인이 넘어질 때 가만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과

연 날 사랑하시긴 하는 건지 의심에 빠진다. 그와 함께 온전치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받을 가치도 자격도 없다는 것에 바닥없는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시56:8). 바로 옆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날 안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굳건히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상황이 여전히 팬찮은지, 내가 얼마나 팬찮은 사람인지가 아니다. 바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다.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기며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은총 전도사
unjena7@hanmail.net

:: 일본에서 온 메시지 ::

:: 귀를 기울이세요 ::

용서 끝에 온 온유와 축복

몇 년을 식당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 꿈이었던 자신의 식당을 차린 그분은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아 주님을 영접하셨다. 그분은 교회 일에도 앞장을 서고 늘 예찬도도 맡아 하셨다. 집사임명을 받고는 더욱 열심히 구역예배까지 자진해서 그분의 식당에서 드셨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여기저기에 비슷한 식당들이 들어서자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집사님은 세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십일조는 꼭 하셨는데, 형편이 어려워져서 행여나 판 곳에 돈을 쓸까봐 그런다며 한 달씩 모아둘 수가 없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십일조를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바로 앞에서 파란 신호에 건너는데 승용차에 살짝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좀 다쳐서 병원엘 다니셨다. 치료와 재활이 끝나면 합의금으로 밀린 집세와 가게 세를 낼 테니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보험회사를 찾아간 집사님은 기절할 뻔했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마음대로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아가서 다 써버린 것이었다. 집세도 밀렸고 생활도 어려운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안 좋은 일이 계속되자 할

수 없이 집사님은 이혼을 하고 남편을 복지양로시설에 맡기고는 조금 먼 곳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나 쉬는 날이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다친 합의금까지 몰래 써버린 무능한 남편이었지만 이혼한 남편의 양로원을 꼭 찾아가서 몇 년 동안 돌아가시는 날까지 보살펴드렸다. 주변에서는 '뭐 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쉬는 날은 쉬라'고 권했지만 집사님은 자신이 힘들어도 가면 좋아하는 노인네의 얼굴이 떠올라 안갈 수가 없다며 양로시설에 몇 년간을 다니셨는데 몇 년인가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식당주인이 식당손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손님도 집사님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 손님은 한참을 식당에 다니며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집사님에게 프러포즈를 했고, 집사님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정하세요.”라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놀란 것은 결혼상대가 일본에서도 일등지에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있을 뿐더러 아파트를 경영하며 세를 받아 생활하는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이다.

집사님은 생활 능력도 없이 속만 썩었다 돌아가신 남편이 자신이 다쳐서 받아야 할

합의금까지 다 날려버린 일로 화내고 이혼한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그 후에도 계속 그 노인 남편을 돌보며 자신의 활기를 죽이고 속은 부글거리며 노인네를 불쌍히 여겨 웃는 얼굴로 그것도 몇 년씩이나 돌아갈 때까지 돌보다보니 성질 급한 자신이 어느 때인가부터 저절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어 그 남편이 밋기보다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셨다.

상대방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억울하게 할 때 얼마든지 보복하고 앙갚음할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지 않고, “오죽하면 저러겠나. 내가 손해보고 참고 말자.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며 온유하게 참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손해를 채우셔서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의 땅주인으로, 즉 미래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멀어서 우리교회까지 올 수가 없어 집 근처 교회로 나가시지만, 이 집사님을 떠나보냄이 아픈 보냄이 아니라 박수로 보내드리는 기쁨의 떠나보냄이었음을 경험한 주의 종도 진정한 온유와 그 복을 눈으로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존재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귀하고 강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놓으시면서 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Good News

사냥을 즐기는 근대 러시아의 문호 이반 투르게네프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당에 새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어린 날개로 날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냥개가 달려와서 덮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어미 참새가 나타나서 사냥개의 얼굴을 쏘아대기 시작

하였습니다. 사냥개가 사납게 짖으며 어미 참새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어미 참새는 물러서지 않고 새끼를 지키려고 결사적으로 달려들어 사냥개를 쏘아대었습니다. 결국은 힘이 빠진 어미 참새는 사냥개에게 물어 뜯겨 죽었습니다. 그 후로 사냥을 갈 때마다 그 참새 생각이 지워지질 않아서 사냥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토대로 ‘참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참새의 사건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악한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몸이 부으면 콩팥이 안 좋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아침, 김미모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지난밤 울며 잠들지도 않았고, 라면이나 짬야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얼굴 뿐 아니라 온몸이 부었다. 급한 대로 얼굴 냉찜질을 해보고 마사지도 해보았지만 별 도움이 안 된다.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들이다. 당장 생긴 붓기야 어떻게든 뺏겠지만 어젯밤과 달리 부어있는 몸을 보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겁부터 난다. 김미모 씨는 수많은 병명들을 떠올리며 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복부 초음파까지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물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어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만약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몸이 붓고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 콩팥이 심하

게 손상되지 않았다면 콩팥 때문에 몸이 붓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반면 콩팥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라면 붓는 증상뿐만 아니라 피로감, 식욕저하, 가려움, 체중변화 등 다른 증상들도 반드시 동반하게 된다.

그렇다면 몸이 붓는다는 것, 부종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 물은 전체 체중의 60%를 차지하는데, 그 중 2/3는 세포 내에 있고 1/3는 세포 밖에 존재한다. 세포 밖에 있는 수분 중 1/4은 혈관 내에서 우리 몸을 순환하고 나머지 3/4은 혈관 밖 간질이란 곳에 존재하게 된다. 몸이 붓는다는 것은 간질의 체액 성분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부종이란 혈관 내 함유되어 있던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피부 밑에 고인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로 단정 지어 설명하

기 어렵다. 간이 손상되거나 만성 영양결핍으로 혈장단백성분이 감소한 경우, 또는 간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혈관 내 압력이 증가하여 혈관 내 수분이 간질로 이동하는 경우, 감작성기능 부전증으로 온 몸이 부으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 혹은 특별한 원인 없이 혈관의 수분투과성이 증가하는 특발성 부종 등, 몸이 붓는 이유는 다양하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부종은 대부분 특발성 부종에 해당하는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생리주기와 관련이 있다. 특발성 부종은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며 다리가 붓는 경우에는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몸이 자주 붓는다면 검사를 받아 부종의 원인을 해결하도록 하자.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복음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가사의 힙합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쇼미더머니’라는 TV 프로그램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우리 교단에서는 이 노래가 사처럼 ‘복음의 연결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영혼들이 물려와 차고 넘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한 예로 A가 B를 전도하고, B가 친한 언니 C를 전도하고, C가 사촌동생 D를 전도하고, D가 학교친구 E를 전도하는, 모두가 ‘예수’라는 연결고리로 묶인 공동체가 된 것이다. 여기에 과거 곳곳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보물찾기처럼 발견되기까지 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부서에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새로 오셨다.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에배 때 새신자 분이 스스로 찾아오시다니 약간 의아했다. 성도님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과거 이십 몇 년 전 어머니와 함께 올림픽공원에서 목사님께 은혜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삶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에 가고 싶다’는 감동을 받으셨단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초석 목사님’을 검색하고 ‘한국예루살렘 교회’가 ‘예수중심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88체육관 수요일예배를 찾아왔다고 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어머니의 소전 등으로 힘든 가운데 예수중심교회 직분자의 전도로 교회를 그냥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 집에서 ‘이초석 목사님의 비디오 설교’를 틀어 놓으셔서 너무나 친근한 ‘흰 양복의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그 분이 계신 교회에 다니게 되다니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으로 묶인 ‘복음의 연결고리’. 그리고 몇 년, 몇 십 년에 걸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정교하고 섬세한 한 영혼 한 영혼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복음의 연결고리’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송현혜 성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다